

현대 국어학의 개척자 이승녕 선생

이병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

심악(心岳) 이승녕(李崇寧) 선생! 그분은 마음이 굳고 뱀뱀 힘이 있어야 한다는 ‘심악오악(心岳五岳)’처럼 일생을 살아가려고 무척 애쓰셨던 분이 다. 그러나 주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노년에 들어서서 마음이 자꾸 연약해지며 자식 같은 제자들을 몹시 그리워하시던 모습을 보이곤 하셨던 분이기도 하다. 소년 시절에는 몸과 마음이 다 약했던 분이려 한다.

선생은 일생을 뱀뱀하며 현대 국어학의 여러 분야를 하나하나 개척해 나가려 했던 분이시다. 그분은 분명히 파란만장했던 현대가 만들어 낸, 즉 현대 국어학의 태두이시다. 한 시대에는 누군가가 대표적으로 그 시대를 증거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꼭 그렇게 되어야만 했을 노력을 기울이고 행적을 남긴다. 만약 그가 그런 일을 해 놓지 않았더라면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살아갔어야만 되는데 역사는 결코 그런 인물을 빠뜨리지 않고 심어 놓고 지나간다. 바로 이승녕 선생이 그러한 역사 속의 한 분이시리라.

이승녕 선생은 대한제국 융희 연간인 1908년(음력 6월 7일)에 서울에서 태어나서 1994년(2월 2일)에 작고하셨으니 대한 제국(일본 통감부 시기), 일제 강점기, 미군정기와 자유당 시절을 거쳐 4.19와 5.16의 격변기를 지내셨으니 얼마나 파란만장한 세월을 겪으셨는가. 특히 6·25 동란이란 한국 전쟁의 비극은 말할 것 없이 학문의 길을 가장 힘들게 한 사건의 하나이기도 하다.

한국동란 무렵까지 선생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늘 격려를 해 주고 정신적 지주가 되어 온 분은 선생의 선친이었는데, 구한말에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던 춘사(春沙) 이병관(李炳觀, 1858~1949) 였다. 마음이 여렸던 선생에게 태산같이 힘 있게 살라고 ‘심악(心岳)’이란 아호를 지어 주신 분도 그의 선친이었다. 심악 선생은 선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 유전적인 체질에서나 학문과 성격에서나 선고(先考)는 나를 가장 총애하시고 장래에 희망을 거시고 가지가지 유훈을 내리신 터로 정신적인 유산을 한껏 받자온 것이다.”

— <春沙公實記>

다음의 중국 송나라 때 시인 산곡(山谷) 황정견(黃庭堅)의 처세훈(處世訓)을 알려 준 분도 역시 그의 선친이었다.

서서무욕속(徐徐無欲速) 세상의 일이란 천천히 하고 서두르지 말라
급급무감타(汲汲無敢惰) 부지런히 하고 조금도 방심 말고 게으르지 말라

심악 선생께서는 이 처세훈을 일생동안 마음에 좌우명(座右銘)처럼 간직하고 계셨는데 여기에 《선가귀감(禪家龜鑑)》에 나오는 “심여묵석자 시

유학도분(心如木石者 始有學道分, 마음이 목석 같은 자라야 비로소 도를 배울 자격이 있느니라)”이라는 글귀도 되새기며 외곶으로 학문의 길을 밟으셨던 것이다. 필자에게 이 글귀들을 써서 일러 주신 때는 필자가 첫 저서 《음운 현상에 있어서의 제약》(1979)을 들고 찾아뵈었을 때였다. 그때가 30대 후반이었는데, 어떤 의미로 써 주셨는지 순간적으로 의아해했던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아마도 선생께서 필자가 그 나이가 되도록 마음이 약한 것을 안타까이 여기고 계셨기 때문이었으리라.

선친 이병관 옹은 연안(延安) 이씨로 14세 연원 부원군 해고(海臯) 이광정(李光庭, 명종 7년 1552~인조 7년 1629)의 후손으로 경과 별시에 급제하여 부수찬 벼슬을 비롯해 규장각 지후관(祇候官)에 이르렀다가 1910년에는 칙임 2등으로 승진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조선 시대 품계로 종2품 가선대부에 올랐던 분이다. 이 연안 이씨 덕은 삼척공파로 내려와 이광정 같은 인물을 내면서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소뉴월)의 씨족 마을을 형성해 내려왔고, 이 덕의 선영이 그곳 인근의 선산에 있는 당당한 모습을 보면 양반 덕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경성제대 학적부에 양반으로 기록되어 있다. 경기도 파주이면서도 울곡을 잇는 서인 계통을 잊지 않고 남인 집안으로 조선 말기에 세력을 잃었지만 학문을 중히 여기던 덕이었다 한다. 그런데 심약 선생은 고종 시대 아버지의 근무지 관계로 파주에서 출생하지 않았고 서울(경성부 수하동 39)의 외가에서 삼남으로 태어났는데, 종녕(鍾寧) 식녕(植寧)에 이어 태어났고 아우는 익녕(益寧)이었다. 서울에 살면서 선생과 함께 교육자의 길을 걸은 형제들이 있다.

어려서 선친으로부터 한문을 배우고 보인학교와 대동공립보통학교(이때 호적계의 실수로 한동안 ‘李慶福’으로 이름이 바뀌었었음) 그리고 경성고등보통학교를 거쳐 경성제2고보(경복중·고등학교의 전신)에 입학, 졸업했는데, 이때까지도 몸이 허약해 선생은 수영, 스케이트, 검도, 승마 등 운동을 하며 체력 단련을 열심히 했다 한다. 만년까지 등산을 하며 체력을 유지하셨는데

청소년 시절의 훈련 덕분이었다. 만년의 등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옛날 같으면 사랑방에서 큰기침이나 하고, 어른다운 몸가짐을 해야 할 나 이인데 룡색을 지고, …… 등산모 뒤로 넘실거리는 흰 털이 부끄러울 때도 있다. 그러나 이 등산만은 내게는 사치도 아니며, 정녕 내 공부를 위하여 함께 오래오래 계속해야 할 자기 수양이기도 하다.”

— <등산과 학문>(1965)

즉 등산 같은 운동으로 기른 정력과 체력을 학문에 고스란히 쏟기 위해 이렇게 등산을 지속하려 하셨다는 것이다. 학문への 엄청난 집착을 볼 수 있다.

제2고보 졸업 후 3수 만에 1928년 경성제국대학 예과 문과(B조)에 합격하였다. 그리고 2년 뒤 예과의 졸업 논문으로 <허부인난설현>이란 조선 시대 문학을 썼는데 학과 교수들의 칭찬을 받고 학자로서의 자질을 인정받음으로써 학문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 한다. 1930년 본과에 진학해 사학과로부터 바로 문학과 ‘조선어학급 문학 전공(朝鮮語學及文學專攻)’으로 옮기고서 명동 카페들을 드나들며 낭만도 즐기면서 영어와 독일어는 물론이고 프랑스어, 러시아어, 그리고 히랍어까지 공부하며 전공 학문, 즉 국어학에 매진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의 하나밖에 없는 대학인 경성제국대학을 들어가 법학을 해 조선시대 이후 최고의 길로 여겼던 입신출세의 길을 건지 않고 ‘조선어학’을 전공하겠다는 소식을 들은 힘없어진 남인 집안 어른들에겐 이만저만한 실망이 아닐 수 없었다. 집으로 몰려와 난리를 쳤다.

“야, 승녕아! 그래 조선어학과를 택했다고 하니 그게 정말이야. 이놈아! 그 어려운 제국대학에 들어갔거든 법과를 해서 뒷날 도지사나 될 것이지, 그래 무슨 희망이 있다고 조선어과를 택해. 꼭 밥 빌어먹을 과를 잡았나.”
“남자란 입신양명해야 해. 출세해야 가문을 일으키는 것이다.”

영·정조 시대 이후로 세력을 잃었던 남인 집안인 연안 이씨 덕으로서는 다시 집안을 일으키기를 기다렸던 희망이 무너지는 듯했을 것이다. 더욱이 일제 강점기 아래에서 민족어를 전공한다는 것은 어른들에게는 크나큰 위협으로 느껴져 크게 불안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학자로 오늘날에 이른 것은 오로지 선고의 가정 교육이 온위(溫威)를 겸하고 학자로서의 자질 함양에 노력해 주신 덕’이라고 심악 선생이 믿었던 것처럼 이때에도 선친만은 “네가 좋다고 결정했으면 네가 자신을 가지고 노력해라.”라고 했다 한다. 당시에 한국에 관한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애족(愛族)이었음은 물론이었다.

3

조선 시대의 한자 중심의 성리학적 언어 연구에 이어 개항기 이후 쓰러져 가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언어 연구는 애국 계몽사상에 기대어 그 시대 언어의 질서에 어울리는 ‘국문지법(國文之法)’인 한글의 당시 문자 체계의 재정립과 새로운 맞춤법(철자법)의 확립을 위한 생각들을 펼치고 연구하려는 민족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에 심악 이승녕 선생은 태어났다. 바로 대한제국 학부에 설립된 국어연구소(1907~1909년)에서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문자 체계를 확립하려던 활동 시기였다. 그 뒤 일제 강점기의 총독부에서는 식민지 교육을 위한 교과서 편찬에 활용할 맞춤법 정리에 힘을 쏟았고 국어학은 여전히 애국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주로 규범 문법 정리에 애를 썼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심악 선생은 근현대 교육의 상징이었다고 하던 ‘대학’의 예과에 진학하였고 예과 문과(B조)의 졸업 후, 본과에 진학해, 사학, 문학, 그리고 어학을 놓고 전공 선택을 고민하다가 사학과로부터 바로 문학과와 조선어학 및 조선 문학 전공으로 옮기고 어학 전공을 택일했던 것이다.

일제의 식민 통치 아래에서 심악 선생은 문학부의 한 젊은 일본인 언어학자 고바야시 히데오(小林英夫, 1903~1978) 교수의 ‘언어학개론’ 강의를

1학년 2학기에 수강하고서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 쪽보다는 서양의 언어 과학적 연구에 큰 자극을 받는다. 서양 특히 소쉬르, 엘름슬레우, 방드리에스, 그라몽, 예스페르센, 파울 등 당시 유럽 언어학의 대표적 학자들의 이론을 접하게 되었고 그 방법을 고려해 한국어 음운사 연구를 비롯해 국어사 연구의 여러 분야를 발전 내지 개척하면서 이 방면의 개척자로서 금자탑을 세우게 되었다. 이송녕 선생의 지론 “국어학은 개별 언어학이다. 그 국어학이 개별 언어학으로 존재하는 동시에 일반 언어학일 수 있다.”, 즉 언어와 언어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생각도 고바야시의 영향을 받은 당시 유럽 언어학이었던 것이다. 대학에서의 ‘조선어학’ 전공 강의 교수는 오구라 신평이(小倉進平) 교수가 있었다. 모두 자료 수집과 그 해석 정도를 하는 수준이었기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언어 과학적 자극에 폭 빠지곤 했다 한다.

당시 20세기 전반기의 언어학은 언어학이란 분야가 형성된 19세기 이래로 온통 유럽의 것이었다. 그것은 민족주의적 언어학에 이어 등장한 역사 언어학이었고 구조주의 언어학이 움텄던 때였다. 미국에서는 겨우 보애스(F. Boas) 등의 인류학으로부터 블룸필드(L. Bloomfield, 기계주의적 분석), 사피어(E. Sapir, 심리주의적 해석) 등이 뒤늦게 독립된 언어학을 부르짖고 있었던 때였다. 그래서 이 새로운 학문으로서의 언어학이 19세기 말엽 동양에 수용되기 시작했을 때는 물론 유럽의 역사 언어학이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1920년대 중반 설립된 ‘대학’에서 새로운 학문으로서의 ‘언어학’이 개설되었던 것이다. ‘조선어학’ 전공으로 마음을 굳힌 ‘이송녕’ 학생은 고바야시 교수로부터 프랑스어를 모르면 언어학을 하지 말라고 함에 자극받고 당시 언어학의 중심지 프랑스의 언어, 즉 프랑스어 그리고 유럽 언어학을 공부하며 원서를 통해 이론적 지식을 얻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조선어문학회보(朝鮮語文學會報)》에 언어학 용어 등을 정리한 짤막한 글들을 재학 중 7편이나 발표했던 후배 이송녕 학생을 지켜본 전공 조교 도남(陶南) 조윤제(趙潤濟) 선생은 이 이송녕 학생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었

었는데, 이승녕 학생은 도남 선생에게 “이제 자네가 조선어학을 책임지게.” 하는 권유를 받고서는 어학 공부에 더욱 매진하게 되셨다 한다. 도남 선생은 조교에서 곧 경성사범학교 교수로 옮겨 가 학생들의 방언 조사를 지도해 《방언집(1, 2집)》을 간행하게 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졸업 논문으로 음운사 연구에 속하는 <조선어의 히아투스 현상에 대하여[朝鮮語ノヒアツス(Hiatus)現象ニ就イテ]>란 400매 분량의 대형 논문을 제출, 많은 칭찬 속에서 최고 성적을 받으시게 되었다. 종전의 국어학에서 볼 수 없었던 현대적인 언어 연구의 주제였다(광복 이후에 이 논문은 《진단학보》 15호에 발표되었다).

4

대학을 졸업한 1933년에 이승녕 선생은 연구실에 남아 서울에서 학문에 정진하고 싶으셨지만 다카하시(高橋亨) 교수가 평양사범학교 교유(敎諭)로 추천해 우여곡절 끝에 몇 달 뒤부터 평양에서 교편생활을 시작하게 되어 객지 생활 13년 뒤 조국 광복을 그곳에서 맞고서 상경하시게 되었다. 평양은 13년 가까이 학술적인 분위기가 전혀 없어 학문 연구와는 거리가 먼 곳으로 과거 기생들이 판을 치던 유희의 도시였다. 이곳에서 선생은 주위의 유희를 물리치며 독일어로 된 원서를 통해 방언학 등의 언어학 공부를 하며 독일어 공부도 계속하셨다.

심약 선생이 이곳 평양에서 이를 악물고 처음으로 마련한 큰 논문이 《진단학보(震檀學報)》 제2호(1935)에 발표한 <어명잡고(魚名雜攷)>와 《신흥》 제8호(1935)에 발표한 <움라우트(Umlaut) 현상을 통해서 본 ‘·’의 음가고(音價攷)>였다. 말하자면 앞의 논문은 무조건 외래 이론을 따른 것이 아니라 ‘방언에서 본 어명(魚名)’, ‘어(魚)의 어원 탐구’, ‘한자의 어명과 그 해석’이란 어휘사, 즉 어원 연구를 하되 음운사와 성어사(成語史,

즉 造語史)와 어원사가 종합된 연구를 시도한 논문이었다. 방언, 한자어와 《제림유사》 등의 각종 문헌상의 자료를 포함해 완전히 광범위한 자료 중심의 해석으로 어휘사 연구에 속한다. 해석을 위해 여기서는 뢰베(R. Loewe)의 《게르만어학》, 키에커스(E. Kieckers)의 《세계의 언어 계통》 중 알타이어 자료와 《몽한 사전》이 등장하기는 한다. 뒤의 논문에서는 학부 학생 때 개념을 소개했던 선생이 일생 동안 지향한 광범위한 자료에 바탕을 둔 귀납적 추론과 광범위한 참고 문헌에 바탕을 두고 엮어 나간 언어 연구의 방향이 감지된다. 이 논문이 1934년에 발족한 진단학회의 학회지 《진단학보》의 제2호(1935)에 발표되었는데 본격적인 근대적 논문집으로는 국내 학술상 시발점이 된 논문집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실증적 연구 논문들이 현재까지도 수록되는 특징을 지닌다. 여기에 위의 논문이 발표되면서 선생은 1939년에는 이 학회의 위원(현재의 ‘이사’쯤에 해당)으로서 학회와 학보, 그리고 친지들과 일생 동안 깊은 인연을 맺었던 것이다. 뒤의 논문은 움라우트(Umlaut) 현상과 음운사를 연결한 연구로 통합적 현상을 연합적 연구에 결합하여 시도한 음운사 연구인데 수록 잡지 《신흥》은 경성제대 동문들이 만들던 종합지다. 당시에는 논문집이 거의 없어 이 잡지에 논문을 발표하셨던 것이었다.

가장 본격적인 이승녕 선생의 논문으로 국어학계에서 평가받고 있는 초기의 논문은 <조선어 이화 작용에 대하여>(《진단학보》 제11호, 1939)와 <Umlaut 현상을 통해서 본 ‘·’의 음가고(音價攷)>를 거친 <· 음고(音攷)>(《진단학보》 제12호, 1940)로 현대국어학의 기점으로 평가를 받아 온 논문이다. 모두 음운사 연구로 유럽 언어학 이론과 방법을 밑바닥에 깔고 광범한 국어 자료를 활용했다. ‘·’의 음가와 모음 체계 관계의 연구는 국어학 사상 기념비적인 명저로 불리는 《조선어 음운론 연구 제1집 ‘·’ 음고(音攷)》(1949)로 집대성되었다. 1942년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학회의 많은 지도급 인사들이 검거되자 진단학회, 조선어학회 등은 학회지를 발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한국인들의 학술 논문 발표 기회는 안타깝게도 거의 없어지고 말았다.

5

1945년 광복의 날이 드디어 우리 앞에 나타났다. 광복을 객지 평양에서 맞은 심악 이승녕 선생은 광복 기념식을 갖고 “우리는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하며 만세를 부르다가 이틀 뒤 상경해 아버지께 인사를 올리고서 조운제 선생을 찾게 되고 “이 군도 평양사범에서 월급을 받았으니 자숙해야 해.” 하는 말을 들었다 한다. 과도기 체제로 출발한 경성대학 예과 부장 현상윤 교수의 청으로 10월 1일 자로 예과 교수 발령을 받으셨다. 백낙준 교수에 이어 법문학부 부장이던 조운제 교수는 “전공 학과의 교수를 해야지.” 하며 크게 꾸짖었는데 달포가 지나 법문학부 조교수로 발령을 받으셨다. 이듬해 교육 제도의 개편에 따라 국립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를 예과 교수와 겸직하게 되었으며 국립서울대학교가 개교함에 따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바뀌게 되었다. 예과 부장까지 맡아 공부에 큰 방해가 되었으나 ‘국어학은 언어학이다.’라고 생각하고 독·불어 원서를 상대로 강의 노트를 새벽까지 작성하고 용어를 영·독·불·라틴어로 맹렬히 훈련시키며 계속 제자들을 가르치고, 진단학회 등 학회 활동도 해 가면서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모음 조화 연구>(《진단학보》 제16호, 1949) <‘애·에·외’의 음가 변이론>(《한글》 13-4, 1949) 등 대·중·소의 논문들을 집필하며 《고어의 음운과 문법》(1949)과 앞에서 언급한 명저 《조선어 음운론 연구 제1집 ‘·’ 음고》를 간행하셨다. 당시에 있었던 ‘·’의 음가를 둘러싸고 펼쳐진 최현배 교수와의 학술 논쟁은 한국 학술 논쟁사에 남긴 큰 사건이었다.

또 이 무렵 나비 채집과 연구로 저명한 곤충학자 석주명(石宙明) 교수와

함께 어청도 등 서해 도서 지역을 답사하며 방언 채집을 하셨으며 학생들과 함께, 아니면 친척 집을 방문해 방언 채집을 하시기도 했는데, 뒤늦게 그 일부 방언 자료를 찾아 이후의 일부 채집 자료를 한데 모아서 한국방언학회에서 《이승녕의 방언 채집 자료》(태학사, 2014)를 이병근·송철의·정승철·정인호·한성우의 해설을 포함해 간행했다. 제주도 방언 채집은 6·25전쟁 중에 종합 학술 답사의 일환으로 시작하셨던 작업으로 ‘·’의 음가와 관련된 모음사 연구에 큰 보탬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잘 알려진 보고 연구로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1957/1978)가 있는바, 이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신 조사표에 따라 제주대학교 현평효 교수 등의 협조를 받아 방언 문법 자료를 채집한 결과였다.

민족 최대의 비극 6.25 동안 속 피난지에서도 이승녕 선생은 생활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연구 자료의 빈곤 같은 악조건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논문을 계속 시도하셨다. 이 무렵 알타이어와의 비교 연구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고 고대 국어 형태론 연구도 시도했으며 방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 하시기도 했다. 전쟁 중에 부산에서 새로이 창립한 역사학회의 회보 《역사학보》와 국어국문학회의 회보 《국어국문학》에도 논문을 발표하셨는데 후에 새로 보완해 개고(改稿)를 발표하시기도 하였다. 전쟁 전에 서울에서도 국학대학 겸임 교수를 잠시 지내셨는데 전쟁 중에도 이희승·방중현 교수와 함께 동국대학교 겸임 교수를 지내시기도 했다. 당시는 물론이요, 한동안 겸임 교수 제도가 지속되었는데, 이는 아마도 대학에 따라 자질 있는 전공 교수의 충원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전란의 혼란이 가라앉으며 차츰 연구 상황이 안정되어 갔다. 1954년에는 전국 학자들의 투표로 제1회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 되는 영예를 얻으셨고 《국어학 개설 (상)》(진문사)과 《고전 문법》(을유문화사)을 저술하셨으며 이듬해에는 당시까지 집필했던 주요 음운론 관련 논문들을 모아 《음운론 연구》(민중서관)를 간행하셨다. 한편 중세 국어 중심에서 고대 국어

연구로 확대하며 형태론 연구를 개척해 나갔고, 또 <세종의 언어 정책에 관한 연구>와 같은 국어학사 관련 논문들도 등장하기 시작한다. 1960년에 다시 음운론, 형태론, 의미론 등 관련 논문들을 《국어학 논고》(동양출판사)로 묶으셨으며 그동안 발표한 조어론(Wortbildungslehre - Word-formation theory) 관련 논문들을 《국어 조어론 논고》(을유문화사)로 묶어 간행하셨다. 심악 선생은 유럽의 전통적인 언어학에서처럼 형태론(Morphologie - morphology)과 조어론은 엄격히 구별해 분리해서 다루셨다. 대학에서 1973년 퇴임 후에 이 조어론 분야의 저서를 준비하다 만 노트가 남아 있었다. 조어론 이론의 기본부터 서술하려 하셨었는데, 이 조어론 분야는 어휘사 연구와 가장 밀접한 분야라 할 수 있다. 필자가 1959년 대학 입시 면접을 치를 때 위원 이승녕 교수는 독일어 원서의 'Ein=leit-ung[서언(序言)]'과 'Vor=les-ung[강의(講義)]'을 읽게 하고는 이들이 무슨 뜻이며 왜 그런 뜻을 지니게 되었는지를 내게 물으셨었다. 다행히 고교 독일어 시간에 조어와 어원까지 설명을 들은 단어였다. 당시에 선생께서 그만큼 조어론에 관심이 있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몇 년 뒤 필자가 대학원생이 되었을 때였다. 이러한 작업들이 바탕이 되어 1961년에는 《고등 국어 문법》과 《중세 국어 문법》을 을유문화사에서 간행했는데 그 체제는 음운 조어 형태 및 통사로 구성하셨다. 이는 알타이어학의 그것을 따른 것이었다. 조어론은 이승녕 선생이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개척하신 분야라 할 수 있다.

한편 문헌의 국어학적 연구도 상당히 진행되었는데 이를 따로 단행본으로는 묶지 않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문헌학적 연구에 속할 문헌 중심의 국어학사 연구는 학사의 개념 서술 태도 등과 조선 초기 학사까지 연재했던 <국어학사> 1~7편(《사상계》, 1956) 이후로 문고판 <혁신 국어학사>(《박영문고》 제101호, 박영사, 1976)에 이르고 선생의 마지막 논문으로 볼 수 있는 <신미(信眉)의 역경 사업(譯經事業)에 관한 연구>(《학술원

논문집》 제25호, 1986) 등이 있는데 국어학사 관련 논문들을 단행본으로 따로 엮지는 못했다. 퇴임 후 한국의 국어학사를 완전히 새로 집필하다가 만 200자 원고지 뭉치 여럿이 단행본으로 묶이지 못하고 쌓여 있었다. 원고의 첫머리는 ‘국어사’와 구별되는 ‘국어학사’의 정의(定義)부터 서술하고 있었다. 국어학사 서술 관련 논문들은 《세종 대왕의 학문과 사상: 학자들과 그 업적》(아세아문화사, 1981)로 묶이기는 했다. 그간 또 발표 논문들을 모아 《국어학 논총》(동양출판사, 1966), 《국어학 연구》(형설출판사, 1972) 등도 내놓으셨다. 이승녕 선생은 일생 동안 저술보다도 논문집으로서의 단행본을 많이 묶으셨는데, 서양에서는 야콥슨(R. Jakobson)이 그러했다.

6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를 26년간 지내고 197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장이 되어 소속도 대학원으로 바뀌었는데 퇴임 후 잠시 인하대학교 초빙 교수와 한양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장,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원장 및 대학원장을 역임하고, 1979년부터 자연보호중앙협의회 위원장에 피임되어 다시 이 관계 논문들도 발표하여 《한국의 전통적 자연관: 한국 자연보호사 서설》(서울대학교 출판부, 1985)로 묶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어휘사와 관련 있는 논문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다. 장편 논문을 단행본으로 간행한 《신라시대의 표기법 체계에 관한 시론》,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탐출판사, 1978) 등도 있고 대형 논문 작성에 늘 깊은 관심을 보인 선생이시라 《논문 작성과 연구 태도》(박영사, 1976), 그리고 건강을 위해 등산을 즐기셨던 선생이시어서 등산 관련 수필을 발표했다가 묶은 《산이 좋아 산을 타니》(박영사, 1978) 등도 있다. 참으로 끈기 있고 부지런한 분이셨다. 70세가 넘으셔서도 옛날 선비처럼 흰 종이도 아껴 쓰시던 검소한 분이시기도 하였다.

교수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승녕 선생에게도 외부로부터의 유혹도 있었다. 예컨대 4.19 직후 장면 정부에서는 선생을 이탈리아 대사로 파견하려 했다. 그럴 때마다 ‘송충이는 술을 먹고 살아야 한다’고 믿고 학자로서의 외길을 고집했다. ‘대학가의 파수병’이었다. 교수 이외의 일을 맡았던 것은 물론 학회나 연구(지원)기관의 장이었다. 진단학회, 한글학회, 국어학회, 한국어 문교육연구회, 백제개발연구원 등이 대표적인 경우였다. 1980년대 말부터 뇌간경색증으로 고생하시다가 1994년 2월 2일 새벽에 파란만장했던 20세기의 현대 국어학의 개척자 심악 이승녕 선생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드님이 근무하던 한국원자력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한평생 외톨수의 일생을 학문과 함께 보낸 이승녕 선생은 자신의 그 길을 지키려 하고 그 길의 옳음을 후학들에게 일깨워 주면서 이렇게 말씀했다.

“내가 갈 길은 일직선의 길일 것이요, 꽃 한 떨기 보이지 않는 일직선의 길이고, 쉬려고 해도 이렇다 할 나무 그늘 하나 없는, 그리고 목표는 보이거나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길일지도 모른다. 이 길을 넘어지며 구르고 그리고 즐기치게 달음질치는 멋도 없는 시골뜨기가 곧 나일 것이다.”

— <서재의 생활>

이 ‘시골뜨기’ 선생은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의지력을 떠올리게 하지만, 높은 학문의 경지에 오르시어 “검손보다는 교만이 낫다.”라고 하실 듯하다. 학문을 높이 쌓은 분의 당당했던 모습을 지금도 보는 듯하다. 고향의 선영 덕암산 중턱에 “여봐라!” 하며 유택에서 당당히 그리고 조용히 잠들어 계신다. 제자들은 선생이 세우신 금자탑의 큰 그늘 아래서 안식을 취하고 단꿈을 꾸며 다시 외곶으로 달리는 시골뜨기가 되려 하였다. 선생 1994년 2월 2일 서거 후 일주기에 후학들이 세운 ‘학덕 추모비(學德追慕碑)’에 제자 이기문(李基文) 교수는 스승의 학문적 일생을 이렇게 요약했다.